

북미 원주민 선교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봄이 온듯해서, 겨울옷을 집어넣고, 가벼운 옷을 꺼내 입었더니,, "네가 겨울왕국을 뭘로 보고,, "하면서 달려드는 4월의 눈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북미에서는 봄을 포기해야 봄이 옵니다,, " 네,,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봄을 포기합니다.



캘거리 도심안에서는 멀쩡한 날씨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원주민 부락을 가다보면, 부락에 가기도 전에 변해버리는 날씨 때문에,,,,,,,,,,,,,,
우린,,,,정~말 행복합니다!! 다양한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즐거운 사역지를 방문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를 반기듯이 서있는 이든벨리 교회당,, 지난 수십년간 창고로, 아이들 놀이터로, 그리고 청소년들의 불법과 비행장소로 방치되었던 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록키산맥 골짜기에 위치한 이 마을은 계곡을 타고 몰아치는 눈과 바람이 많습니다, 마음은 복음으로 충만해 지기를..





뉴스로만 듣던 10대 아이들의 자살,,, 우리 마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겨우 주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가정의 아들(가이, 15살)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나님,,,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을의 원주민들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병원을 매일 찾아가서 기도했지만, 그는 결국 일주일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들의 외딴삶에서 청소년들이 술과 마약을 접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이제 모방 자살이 두렵기만 합니다.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주일 예배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옆에 서있기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술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사람들을 외면하고 쫓아내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선교사는, 위로하며 기도해주며, 복음안에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마을 주민 거의가 이런 상태라면 믿겠습니까? 철저히 버려진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과 인내가 충만한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자기 모자를 써보라고 하는 웨인 레후트 핸드,,나한테 어울리지 않는것은 분명했지만, 인디언들은 자기들의 옷이나 모자를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마음표현이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지만, 예배에 왔답니다, 마음과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제이" 가족입니다, 예배참석하기는 2달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굴에 보입니다.

예배후에 집에 가면서도 자기가 먼저 말합니다 "다음주일에 또 만나요.."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인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의 유별난 강추위와 폭설로
고립이 되다시피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었는데, 날이 풀리기 시작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성령님께
서 일해주셔서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의 백성들이 되기를,,

한국은 벌써 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는 아직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예배후에는 빵과 국을 같이 나누어 먹는
데, 이번 부활절에는 큰~~인심써서 라면
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사발면!! 거기
다가 밥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ㅎㅎ. 어찌
된일인지, 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북
미의 인디언들도,,모두 좋아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기도제목 드립니다=

- 1) 이든벨리 교회에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위해서
(마을의 거의 모든사람들이 알콜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해도 될정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 2) 마을사람중 많은 사람들이 폐렴 혹은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순양 선교사가 같이 심방하면서 약간 힘들어 했었는데, 이 선교사의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해서 관찰해 보자는 의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영어"를 더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특히, 아직도 서먹한 북미영어 발음에 빨리 익숙해 질수 있도록.

(2017년 5월 19일) 겨울왕국, 캐나다에서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드립니다.